

조선동해호칭문제소고 (2)

- <일본해>호칭문제비판-

사공 준

필자는 <조선동해호칭문제소고 1> (2002/7) 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바가 있다. 21 세기가 되어 인류가 해결을 보아야 할 작업의 하나가 20 세기에 저지른 과오, 특히 다른 민족의 자주성을 침해한 어떠한 식민지적잔해, 그 후과를 청산하는 작업이다. 또한 이는 더는 미루어서는 안되며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1. 일본정부차원에서 벌어지는 <일본해>호칭 강요책동

예기에서 문제가 되는것은 일본정부의 최근 움직임이다. 일본정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일본해>호칭은 지리적, 역사적으로 확립되어 있다.
2. 국련,국제수로기구에서 지지,사용하고 있다.
3. 국련의 공식문헌의 표준적인 지명으로 되어 있다.
4. 최근 시기의 <국련지명표준화회의> 및 <국제수로기관>의 바다이름에 관한 결의는 <일본해>호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주장하면서 일본정부는 국제무대에서 암약하고 있다.그 움직임은 완전히 저들의 <정치적야심>을 실현하자는 움직임이다 .최근시기의 몇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일본정부는 2002/8 여러 나라 외교관계당국,지도제작 회사.언론계에 저들의 주장인 <일본해>호칭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문서를 배포하였다.
2. 같은 2002/8 전후시기에 일본의 해상보안청 (海上保安廳) 은 세계 각국의 IHO 에 대하여 프랑스어,영어,일어,에스파니아어,알라비아어로 된 <일본해>호칭 사용을 강요하는 문서 (압력을 가하는 문서) 를 배포하였다.
3. 2004/8 말경에는 일본 외무성의 URL 에서 <일본해>호칭 강요 기사를 실었다.
4. 일본 해상보안청정 본부는 URL 를 통하여 <일본해>호칭사용 강요를 요구하였다.
5. 일본정부는 이어 해외에 있는 공관들을 동원하여 <일본해>호칭사용을 각국에 요청하였다. 그 대상은 지명을 취급하는 각종 회사,출판사,여러 항공회사,UNSCO URL,WHO 서태평양사무국 등 넓은 범위이다.
6. 일본은 국가기관을 통하여,즉 일본의 외교력을 총동원하여 세계의 여러분야 대상에 <일본해>호칭사용을 위하여 날뛰고 있다. 일본외무성은 저들의 URL 에서 <항의했다>,<조희중이다>,<요청했다>고 밝히고 있다.
7. 일본정부는 국련의 여러 부문기관에도 압력을 가하고 있다.
8. <조선동해>호칭,<동해>호칭으로 하면 <해난사고> 발생시에 수습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므로 <일본해>호칭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날마다 강력히 주장하며 해외뿐만 아니라 일본국민에도 <호소>하며 일부 국수적인 발언까지 발생케 하였다.

이상과 같이 일본은 <조선동해>호칭문제를 완전히 <정치문제화>시키고 있다. 지명문제는 <정치문제화>시켜서는 안되는 문제이다. 지명은 역사적으로 내려온 민족의 문화에 속하는 자주성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지명에서 외곡된것이나 오유가 있을때는 본래의 고유한 명칭에 되돌리고 정당한것에 정확하게 복원시켜야 할 문제가 된다. 지명문제는 정치문제가 아니다. 특히 <외교권>을 <발동>해서는 안되는 문제이다.

일본은 저들의 주장에서 <일본해>호칭이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확립되어 있다고 하며 그것도 저들이 <사용>한것이 아니라 <서양사람>들이 먼저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이 정당한 이유로 되지 않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일본에 와있었던 <서양사람>이 일본의 지도를 가져가 그것을 리용한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오유가 생긴 지명은 본래의 정당한 고유한 지명에 복원해야 하는것이다. 어떤 오유가 발견되었을 때는 그것을 지적하고 사용하여서는 안되는 법이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오히려 그것을 <일본해>호칭 사용의 <근거>의 하나로 하고 있으니 말도 안된다. 또한 그것이 저들의 야망을 저의에 두고 있으니 위험한 일이라 말할수 있다.

또한 일본정부는 서양지도에 고취하고 있다. 왜 일본정부는 서양지도를 <은은>하는가. 그리고 마치나 세계적인 <인정>, 국제적 <인정>을 받아 있는것처럼 강조한다. 부당한것을 <인정>받아서 무엇을 획책하려고 하는가. 참으로 리해하기 힘든 일이다. 그것도 일본정부차원에서의 움직임이니 이야기가 더욱 복잡하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하나의 재침략과 별 다름이 없는 행동이라 아니 할수 없다.

2. <조선동해,동해>호칭 복원을 위한 우리의 입장

(1) <조선동해,동해>호칭의 정당성

일본정부는 조선동해를 <일본해>로 처음으로 사용된것은 17세기초 이탈리아의 **Mattero Ricci** 가 작성한 <곤여만국전도 ; 坤輿萬國全圖;1602>이라고 한다. 이 지도는 일본 나가사키의 선교자로부터 자료제공을 받아 작성된 지도이다. 그것을 운운하여 서양에서 먼저 <일본해>호칭을 사용하였기때문에 일본은 <자기의사>가 이니라 서양에 뒤따라 호칭하였다고 까지 하니 참으로 웃으운 일이라 아니 할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장을 로씨아의 **IF Krusenstern** (1770-1846) 가 작성한 1813년의 지도에 기인한다고 할때도 있다. 로씨아에서 먼저 호칭하였기 때문에 자기들도 뒤따라 호칭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조선해>,<조선동해,동해>,<동양해>,<Sea of Korea >,<East Sea of Korea>가 호칭된 역사는 더욱 오랜 사실이다. 우리 나라의 <삼국사기,고구려본기> (BC59) 의 실례 등 수다하다. 여기에서는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17세기초 서양의 실례에 한하여 몇가지 올려도 그것을 알수 있다.

- 13 세기 A Map of Marco Polo's Voyages & Travels in Century Eastern Sea
(리상태,2003/10 논문)
- 1440 Vinland map.Carpine,Yale University 동양해
- 1528 Bendetto Bordon,Venice Ocean Orientalis MARE ORIENTALE
<1540 Sebastian Manster's 의 세계지도 Oceanus Orientalis>
- 1615 France 의 <Map da Asia> Manuel Godinho de Heredia MAR CORIA
- 1616 Portugal Godhino de Eredia 의 지도 Sea of Korea
소문자로 (Sea of Japan)
- 1617 France 의 <아시아지도>
- 1646/7 영국의 탐험자작성 지도 2 엽
- 1647 영국의 <日本蝦夷島圖> Sir Robert Dudidy Mare di Corai
- 1687 Nic Witzen 의 Noorden Oostary 지도 Oceanus Orientalis
.....등 다수

이상 서양지도에 대하여 몇가지 사례를 올렸으나 그렇게 까지 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당시의 일본정권인 에도막부 (江戶幕府) 의 명으로 작성된 공식지도에는 <조선해>호칭이다. 이렇게 보면 현재 일본정부의 주장은 생억제에 지나지 않다. 일본정부가 저들의 립장이 다당하다고 과거의 사례 (史例) 를 말하면 말할수록 저들의 주장의 허위성을 보여주는것 이외 아무것도 아니다.

18 세기말로부터 19 세기초에 아시아지역의 진출 (침략) 을 목적으로 한 당시의 프랑스,영국,로시아 등이 조선동해주변을 <탐험>하여 Marco Polo (1254-1324.1.8) 의 <신화,東方見聞記,1299>의 <Zipangu>의 금을 가져가기 위하여 지도를 작성할때 Philipp Fanz.Van Siebold (1796-1866) 는 조선동해를 잘 번역하지 못하고 <Japanische Sea>로 하였다. 그가 일본에 오래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하였다고 분석된다. 그는 <독일인>인데도 불구하고 화란정부가 동양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화란인>으로 가장시켜 (일본에 파견하여) 일본에 잠입시킨 인물이였다는것을 우리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그후 이 지도를 리용하여 <일본해>표기를 한 일부 지도가 서양에서 제작되었다. 이러한 영향을 받은 지도가 일본에 <역류입>되어 류포되었다고 보는것이 다당하다고 본다.

당시 일본은 쇄국정책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완전한 쇄국은 아니였다. 일본이 쇄국을 해제한것은 1854 년이라 하고 있지만 단 한번도 쇄국이 된바는 없었다. 따라서 <일본해>호칭은 외국에서 지멋되로 사용한것이고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詭辨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이상 본바와 같이 만약 일본이 <일본해>호칭 사용이 저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서양에서 먼저 사용되었다 한다면 그것은 력사적사실과 어긋난것이다.

또한 서양이 <먼저 사용>하였기 때문에 저들이 <일본해>호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력사적원칙에서 틀린것, 오유가 있는것을 사용한것으로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응당 오른것,정당한 <조선동해>를 호칭하여야 하는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묵과하여서는 안되는 일이 있다.

1929 년의 <국제수로기관>의 <결정>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바다이름 (海名) 은 그 바다에 면하고 있는 나라들이 <협약하여 조약>을 맺어 국제적으로 제기하여 결정되어야 하는것이다. 그런데 <일본해>호칭문제에서는 이 절자가 없다. 1929 년의 국제수로기관의 회의 (18 개국과 영국식민지였던 호주,인도 및 애쉴트가 참석) 에는 단 한 사람의 우리 나라 대표가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는 3 명의 <대표>인 군인 사콘지 (左近司政三) ,야마구찌 (山口熊平) ,소우-미나토 (湊一磨) 들이 참석, 서양에서는 21 개국,42 명이 참석, 그들은 군인들과 수로관계자들이었다. 그들은 저들의 저의에 의하여 <일본해>호칭을 <결정>하였다.

그래서 일본정부는 이 <결정>은 저들이 주장하여 결정된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지>된것을 <국제수로기관>이 <추정>하였기때문에 <일본지배>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이러한 궤변을 하니 말이 안된다.이것은 일본정부의 기만에 찬 주장이라 아니 할수 없다.그 회의<결정>에 대하여 침략적리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자들이 모인 회의장소에서 그 누가 <이의,異議>를 제기하겠는가 하는 문제는 자명한 문제이다.

이때 <대양과 해양의 경계>이란 소책자가 발간되어 그것이 <관습적>으로 1937,1952,1986 년에 <인쇄>되었다.다시 말 한다면 우리 나라 대표를 단 한 사람도 참석시키지 안했던 <회의결정>이 이렇게도 긴 세월 <사용>된 사실이다.그리고 문제는 일본정부가 그것을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태도이다. <조선동해>호칭은 정당한 역사적인 진실이다. 진실 앞에서는 사람들은 허심하여야 하는법이다. 허심한 사람만이 진실과 평화의 귀중함을 간직할수 있고 국제적지지를 받은 법이다.

1929 년의 회의에 우리 나라 대표를 참석시키지 안했다는 사실,이것이 <20 세기전반기의 식민주의의 잔해>가 되는것이다.

(2) 현재 조선동해,동해 표기문제

일본정부는 2000/4 부터 2004/10 까지 세계의 60 개국의 지도를 <조사>하여 <일본해>호칭 사용이 일반적이라고 발표한바가 있다. 이러한 주장은 너무나 저들의 주장을 미장하는것으로 된다. <다수>가 정의가 될수는 없다. 이때의 <다수>는 <정치적>이고 일본과의 경제적관계 등으로 그렇게 밖에 될수 없는 나라들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이 세상에는 진실은 하나밖에 없는 법이다. 필자가 알기로는 일본정부가 여러 나라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모양이다.

필자는 <조선동해>호칭문제는 <정치적>으로 리용되어서는 안되며 본래의 정당한 자리에 돌려세워야 한다고 본다. 필자가 주장하는 해명은 <일본해>호칭이 아니라 <조선동해, East Sea of Korea,략칭 동해, East Sea>호칭이다. 본래의 호칭을 되찾는 민족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3) 해명표기의 국제관례

필자는 반도와 섬으로 둘러싸인 해역명칭에 대하여 론한바가 있다.

*<조선동해호칭문제소론> (2002/7)

*<조선해 및 동해 표기의 역사적거위와 국제적관습에 대한 고찰> (2003/10)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론하지 않으나 해명유래를 본다면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는것을 그 글들에서 밝혔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대륙을 기준으로 한 해명; <중국남해>,<북해>
- ② 반도나 섬 사이를 기준으로 하여 명명;<Arabia Sea>,<Chukchi Sea>
- ③ 지방명을 딴 해명; <Gulf of Alaska>,<Norweglan Sea>,<Labrador Sea>
- ④ 인명유래의 해명;<Barents Sea>,<Marellan 해형>,<Amaundsen Sea>
- ⑤ 민족명유래의 해명; <Lonian Sea>,<Sea of Aov>,<Persian Gulf>,<Caspian Sea>,<Baltic Sea>
- ⑥ 물 색깔유래의 해명;<White Sea>,<Red Sea>,<황해,조선서해>
- ⑦ 방위유래의 해명;<북해>,<동해>,<서해>,<동중국해>,<서중국해>
- ⑧ 지명,도시명유래의 해명;<Dover 해협>,<Str.of Malacca>등 다수
- ⑨ 대륙과 대륙 사이의 해명;지중해
- ⑩ 기타; 조수의 급류,간석지,지역개발,신화,식물,대리석 등

결론적으로 말하여 주목되는것은 역사적으로 <반도와 섬 사이의 해명>에서 섬, 또는 섬나라 (례 일본) 국명과 동명으로 命名한 바다이름은 없다는것이다. 섬이름을 리용한것은 동남아시아의 Malay Pen.근해의 <Andaman Sea>가 있다.이것은 국명은 아니다.

결론. <조선동해> (략칭 동해) 호칭표기를 위한 국제적 보급문제

현시기 <조선동해>호칭문제 해결의 가장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방법은 역사적으로 내려온 지명인 <조선동해,동해>호칭의 <단독>표기이다. 조선반도의 동쪽에 위치하는 해명이다. 영어표기로 <East Sea of Korea>이다. <Sea of Japan>은 <일본의 바다>이란 뜻이다. 조선동해는 <일본의 바다>가 아니다.

다음으로 <일본해>호칭표기의 <정당성>을 운운하는 일본정부의 움직임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시키는 문제이다. 무엇을 가지고 일본정부는 <정당성>을 강조하는가.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21 세기는 20 세가 남긴 불미스러운 식민지적잔해를 청산하는 세기이며 이 동향은 오늘날의 국제적지향이다.

그리고 <조선동해>호칭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